

별별 선교사의 편지_2021 년 1 월_오키나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종우 선교사입니다.

해가 바뀌고 어느새 2021 년이 된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별별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파송(2019 년 11 월 10 일)받고 이제 2 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2 년차이지만 1 년차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월말이면 도쿄 기독교 대학에서의 1 학년 생활도 마무리되고, 마지막 1 년을 남겨두게 됩니다. 남은 1 년 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심해져서, 감염자가 연일 몇 천명씩 발생하여 두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숙할 것을 요청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저는 조심하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도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또 흘러 넘쳐 이웃에게도 흘러 흘러 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일본 가운데서도 오키나와 선교를 희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은 잠시 학 교가 있는 치바에서 오키나와로 와서 이토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교회의 숙소에서 신세를 지며 오키나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며 한국인 선배 선교사님들(이원배 선교사님, 김돈영 선교사님, 김병구 선교사님, 곽한상 선교사님, 서원형 선교사님, 박영철 선교사님, 곽용길 선교사님)을 만나, 지금까지의 오키나와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들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94 년에 파송받아 오신 분부터, 최근 2015 년에 오신 분까지 다양한 기간과 또 다양한 한국의 파송 단체,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교단에 소속되어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파송받아 온 오키나와 선교사로서, 각자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제가 희망하고 있는 선교지 오키나와에 대하여 동역자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고 오키나와를 위해,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키나와는, 한국에 일본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서, 원래는 일본이 아닌 독립국가 류큐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깝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중계 무역으로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600 년대부터 일본(사쓰마 번)의 침략으로 조공국이 되었고, 19 세기 후반 일본은 다시 류큐를 침략하여 이제는 가혹한 식민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지만, 1873 년에 류큐왕국에서 류큐 번(琉球藩, 번은 막번체제에서의 번을 의미, 번은 다이묘의 영지)으로, 1879 년에는 일본에 완전히 편입되어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완전히 일본에 편입되어 오키나와가 된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약 140 여년 전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 학살하며 오키나와 전체 섬의 30%에 이르는 10 만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되고, 오키나와와 상관이 없는 전쟁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과 오키나와, 한국, 대만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45 년 일본이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한 이후, 오키나와는 27 년간 미국 군대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1972 년에 일본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내의 미군의 약 70%가 오키나와에 주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키나와는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대부분 일본화 되었지만 아직도 극소수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는 여러 면에서 차별과 소외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일본이지만 또 일본이 아닌, 복잡한 오키나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러한 오키나와에서 사역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일본 교회와 함께,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감당해 오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 감동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통하여 오키나와 사역에서 벽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조상숭배와 샤머니즘, 가족중심주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활동 등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다르게 신도와 불교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조상숭배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 지점이 기독교와 가장 많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는 불단이 있고, 불단 안에는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진 위패가 있습니다. 이 위패를 조상과 동일시하며, 이 위패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나면, 집에 있는 재산보다 위패를 먼저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는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이 위패에 관한 것은 오키나와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상신들과의 안녕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상신들로부터의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이들이 받은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수 많은 신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 유일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선교도 그렇지만 일본 선교는 열매가 특히 적어 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키나와는 가족중심의 생활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과거로부터 여러가지의 영향으로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또 교회에 초대하지만, 번번이 가족모임으로 교회에 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모임을 주일에 많이 하고, 그 모임에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도 그런 학교의 일요일 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한국의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고3 일 때는 대입을 준비하며 주일에도 학교에 출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는 것으로 담임선생님과 타협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가족 모임, 친족 모임이 상상 이외로 강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일이 선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가족중심의 생활을 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고, 전도를 해야할 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시간인 특별활동 시간에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주일도 학교의 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의 경우는 일본 본토보다도 부활동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만나 전도를 하면, 토요일도 주일도 부활동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일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조차 중학교에 올라가고 부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 목사님은 이 일본의 학교 부활동이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동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법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도 교회 교육보다, 신앙의 교육보다 학교의 공부, 세상에서의 출세를 중요시하기도 하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학생시절 신앙의 계승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쉽지 않기에, 학생시절의 신앙의 계승에 힘을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교회학교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더욱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충북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떠올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익숙한 삶이지만, 그 오키나와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학교의 부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장하여 가는 일들은, 그들에게 당연하고 편안하고 익숙하여 좋기에, 방해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들이 평안하고, 좋다고 느끼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오키나와에서 무엇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지 기도가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조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선교지 오키나와에 대하여 제가 아는 만큼만 누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지 오키나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더 깊이 저들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한 선교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전방과 후방의 협력 사역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생각이 나실 때마다 오키나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억하고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동역자님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키나와에서 2021년 1월 29일 유종우 선교사 드림